



福音新聞 /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每月一日発行)

2026年5月1日 (金) 第859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発行人/張慶泰・編集人/鄭守煥

印刷所 青丘文化社

어머니주일
설교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사사기 4장>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이시바시 마리에 총무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이름과 직업이 기록된 인물은 매우 드뭅니다. 산파 십브라와 부아(출애굽기), 예언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사사기), 그리고 자색 옷감 상인 루디아(사도행전) 등이 그 예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드보라'에게 주목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에훤에 의해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으나, 에훤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이하: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하술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졌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나 악을 행한 대가를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여성'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의 등장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을 조건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장군 시스라가 이끄는 적군은 철 병거 900대를 보유한 강적. 이에 맞선 이스라엘 군은 1만 명의 병사. 결과, 장군 시스라를 제외한 모든 자가 쓰러져,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장군 시스라는 우호 관계에 있던 헤벨의 장막까지 도망쳤으나, 그곳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여성(야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용기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철 병거라는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주님께서서는 믿음의 도전을 던지신 것입니다. 눈앞의 철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 믿음이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히11:1).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바락은 전쟁에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됩시다.

2. 주님의 선택

바락을 격려한 이는 드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장군 시스라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

이 또한 야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처지가 약했던 두 여성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남성의 활약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동등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4장처럼 여성이 핵심 인물이 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에는 성별이 관계없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가장 적합한 그릇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타인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3. 믿음의 눈

14절.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며,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고 말합니다. 드보라에게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현실에서 보이는 적군대, 철 병거, 더구나 이스라엘 군의 수가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인 것입니다. 상대 나라는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군대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군대.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야,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릇을 택하실 때, 우리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외모나 내적 요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그릇을 택하실 때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지도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은 칼도 아닌 지팡이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의문을 품게 되지만, 그는 지팡이 한 자루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드보라는 예언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릇으로서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됩시다.

관동지방교회

川崎教会 김성태 목사 위임 선교사 2세로서 성대히 위임식 거행



2026년 4월 19일, 가와사키 교회에서 김성태 담임목사의 위임식이 관동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관동지방회 부회장 이영구장로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정유성목사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요한복음21:15-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계속해서 진행된 목사 위임식은 지방회장인 김신아목사의 집례로 소개, 서약, 기도,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관동지방회로부터 가와사키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김성태목사는 1985년 한국에서 태어나, 1997년 선교사인 아버지(김종현 목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와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또한 호주로 유학하여 필그림 신학대학(Pilgrim Theological College, University of Divinity)을 수료했다.

2012년 서부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武庫川교회와 東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왔다.
가족은 장예지 사모와 1녀가 있다.

大阪北部教会

김형곤 장로 장립식 거행 권사 취임식과 명예장로 추대식도 함께



2026년 4월 26일(주) 오후, 大阪北部교회에서 김형곤 장로 장립식 및 전조묘 권사 취임식, 김정길 명예장로 추대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당회장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개최된 예배에서는 김무사목사가 <장로로서의 소명> (벧전 5: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형곤장로 장립식은 관서지방회장 김중권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안수기도,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당회장 조영철목사의 사식으로 전조묘 권사취임식과 김정길 명예장로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이번에 大阪北部교회의 시무장로로 장립받은 김형곤장로는 1962년 한국 충주에서 출생하여 2017년부터 본 교회의 집사로 섬겨왔다.

가족은 부인 김미란집사와 두 아들이 있다.

관동지방교회

제74회 정기대회 개최 이은주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재선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74회 정기대회가 3월20일(금) 品川教会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개최예배에서는 강장식목사(品川教会)가 ‘큰 보자기 믿음’ (사도행전10:9~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서 박은주 목사(샘물교회)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강장식목사가 축도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부서 보고, 임원 개선,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되어 승인되었다.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이은주(横浜教会) · 부회장 : 이민례(西新井教会)
- 서 기 : 강영옥(川崎教会) · 부서기 : 이혜숙(東京教会)
- 회 계 : 고희선(品川教会) · 부회계 : 김숙자(西新井教会)
- 선교부장 : 박영원 (品川教会), 부원 : 김현정 (東京教会)
- 사회부장 : 황미경 (東京第一教会), 부원 : 야스오카 쿠미 (横浜教会)
- 교육부장 : 박신영 (한사랑教会), 부원 : 정순옥 (横須賀教会)
- 재정부장 : 김혜진 (川崎教会), 부원 : 김현아 (東京教会)
- 감사 : 권초혜 (船橋教会), 이계순 (川崎教会)



중부여성회

제66회 정기대회 개최 여화숙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

지난 4월 11일(토), 나고야교회에서 중부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66회 정기대회가 5개 교회 대의원 23명 중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김명균목사(나고야교회)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누가복음 16:10)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성찬식을 한 후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김은숙 회장의 개회 선언 후, 내빈 소개(김명균목사, 이시바시 마리에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진용목사)를 한 후, 나고야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 어린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여 전 회의록 낭독, 회계 결산 보고, 회계 감사 보고를 마친 뒤 임원 개선에 들어갔다. 임원 개선이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 보고, 각 부 보고, 회장 보고, 각 교회 보고가 이루어졌다. 차기 정기대회 장소는 제66회 제1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정기대회를 마쳤다.

폐회 예배는 이시바시 마리에 전국여성회 총무가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마가복음16:1-18)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중부지방회장 이진용목사의 축도와 신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정기대회를 모두 마쳤다.

오랜만에 오카자키교회에서 대의원 두 명이 참석한 것과 처음 참석한 대의원이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으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 임원과 위원은 아래와 같다.

- 회 장 : 여화숙(나고야)
- 부회장 : 김미경(기후)
- 서 기 : 이정자(나고야)
- 부서기 : 이누이카즈코(토요하시)
- 회 계 : 조솔섭(나고야)
- 부회계 : 김귀순(나고야)
- 전도부장 : 김진명(나가노)
- 부부장 : 김미자(나고야)
- 교육부장 : 김은숙(토요하시)
- 부부장 : 오지혜(기후)
- 사회부장 : 박경희(나고야)
- 부부장 : 송복희(나고야)
- 청년부장 : 윤혜정(나고야)
- 부부장 : 류주연(나고야)

(보고: 카네마쓰 미네오)



관서여성회

제73회 정기대회 개최

11교회로부터 41명 대위원이 출석

2026년3월21일(토) 교토교회에서 관서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73회 정기대회가 11교회 43명의 대의원 중 10교회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김종권목사(히라노)에 의한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나요?> (딤후3:1-7)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그 후 이성준 목사(교토)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유수미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김종권 목사, 송복희 권사(영상), 김지중 '색동의 집' 이사장(서면, 전조모 부회장 대독)의 축사 후, 각종보고와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승인을 받았다.

폐회예배에서는 이성준목사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나라> (눅 10:38-42)라는 설교가 있었다.

제73회 정기대회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천말선)



서남여성회

제69회 정기대회 개최

각 교회로부터 14명 대위원이 출석

4월18일(토), 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69회정기대회가 대의원17명중14명출석, 배석 포함하여 총19명이 출석하여 고쿠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서남지방여성회 임영숙회장의 사회로, 메세지 김승희 목사 「영원히 목 마르지 이니하리니」 (요한복음4:6-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전국 여성회 이시바시 마리에 총무의 내빈 축사, 총회 신도위원회 양윤자 권사의 보고가 있었다.

대회 순서에 의해 각부, 각교회 활동 보고, 회계결산보고 내년도 예산안 등이 승인되었다.

폐회예배는 양정자 부회장의 사회로 찬송가508부른후 김승희 목사의 <마음.뜻.힘을 다해서> (신명기6:1-5) " 라는 제목으로 메세지가 있는 후 축도로 마쳤다.



서부여성회

제39회 정기대회 개최

新회장에 윤풍자권사(神戸)를 선출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제39차 정기대회가 4월10일(금) 11:00 고베동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5개 교회 소속 총15명의 대의원이 출석했다. 이번 년도는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로서 개회예배는 윤풍자 부회장의 사회로 시온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고베교회 한세일목사의 <주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 (고전 15:57-58)라는 제목의 설교말씀이 있었으며, 고베동부교회 한승철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양윤자 회장의 개회사가 있는 후, 40주년 기념으로 심정아 권사(제5, 7대 회장)를 비롯하여 전국여성회 이시바시 마리에 총무, 회장 송복희권사(영상), 前총회장 양영우 목사, 신도위원장 윤종훈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점심식사 후 회의가 시작되어 총괄보고와 결산보고 등이 있었으며, 새로운 임원선출이 이루어졌다.

차기예산안 승인이 있었으며, 2026년도 활동방침안이 수립되었다.

폐회예배는 윤풍자 신임 회장의 사회로 거행되어 고베동부교회 한승철목사의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는 신앙인> (여호수아 2:15-24)라는 제목으로 설교말씀이 있는 후 축도로 마쳤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윤풍자 (神戸) · 부회장: 김일숙 (武庫川)
- 서 기: 후쿠다 토모코 (川西) · 부서기: 박애리 (武庫川)
- 회 계: 채청미 (武庫川) · 부회계: 최향옥 (神戸)
- 선교부: 이경숙 (広島) · 교육부: 와카마츠 유우코 (川西)
- 청년부: 이현지 (神戸) · 음악부: 김지연 (岡山)
- 사회부: 유정혜 (武庫川)
- 회계감사: 류미희 (岡山), 박옥화 (広島)
- 고 문: 양윤자 (神戸)

(보고: 최혜미자)



서남여성회

춘계 1일 연수회 개최

박영철목사(対馬메구미전도소)를 강사로

2021년3월 20일, 후쿠오카 교회에서 서남지방 교회여성 연합회가 주최하는 <춘계 1일 연수회> 가 열렸다.

이번에는 쓰시마(対馬) 메구미전도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영철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두 차례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박영철목사는 제1부 <착하고 충성된 중> (마태복음 25:14-30), 제2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15:10)라는 주제로 対馬메구미 전도소의 개척 상황 보고와 함께 귀한 말씀을 전했다.

참가자는 후쿠오카교회 18명, 후쿠오카중앙교회 8명, 우베교회 2명, 오리오교회 3명, 고쿠라교회 5명, 기타 2명 등 총 38명과 신치선목사, 이혜란목사, 임명기목사, 김승희 목사가 참석했다.

박영철 목사의 주제 강연 후, 그룹별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 발표 시간을 가졌다.

(보고: 임영숙)



룻 결혼상담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마음을 다해 성혼까지 돌보겠습니다.

代表 崔貞淑 (神戸東部教会名誉勸士、경력 30년)

〒659-0012 芦屋市朝日ヶ丘町10-35-504

090-3429-9707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결정과 방향 (1)

-일본 언론의 반응과 정치권 논쟁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파장-

현대종교 탁지웅신부

일본 사법부가 일본 종교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렸다.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작년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에서 활동해 온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고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종교와 사회, 그리고 정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된 일본 사회의 종교 논쟁에서 내려진 사법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종교계와 정치권에도 어떠한 방법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교 문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 통일교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통일교의 포교 방식과 재정 구조는 일본 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 사회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라 불리는 현금 방식이었다. 조상 영혼의 문제나 영적 불행을 강조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 민사소송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과도한 현금 요구와 강압적 포교 방식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며 통일교의 활동을 비판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비판의 소리는 더 커졌으며, 통일교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종교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정교분리 원칙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 문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사회적 논쟁의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아베 전 총리 사건과 일본 사회의 충격

통일교 문제가 일본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이었다. 범인인 야마가미 데츠야(山上徹也)는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현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불행한 개인사가 통일교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는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베 전 총리를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일본은 전후 수십 년 동안 정치인이 충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와 접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소속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통일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 조사와 해산 청구

아베 전 총리 충격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부과학성은 피해자 증언, 민사 판결 기록, 현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천만 엔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23년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 해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

2025년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대해 단순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현금을 모아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다. 통일교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026년 도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조직적 행위를 고려할 때 해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일교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일교 측 변호인은 3월 9일 대법원(最高裁判所)에 특별 항고를 했으나,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미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해산 명령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통일교는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고 세제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임의단체로서 활동은 인정되고,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승공연합(國際勝共連合) 등 관련 단체의 활동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506명에게 약 74억 엔(약 69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또한 도쿄고등법원 결정은 교단이 컴플라이언스 선언(2009년) 이후에도 “조상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끌어올린다”는 등의 구실로 고액 현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했고, 2022년에는 현금 예산액이 선언 이전을 넘어 560억 엔(약 523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쿄고등법원은 불법행위의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다수의 대상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고, 이는 신도의 가족과 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행위의 결과는 중대하며, 해산 명령 요건 가운데 하나인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쿄고등법원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4년도 말 기준 약 1040억 엔(약 972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토 다카시(伊藤 尚)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했으며, 교단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청산인은 피해자를 채권자로 인정하고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호에 계속)